

CLC Prayer Session
주일학교 기도의 시간
January 2018

Wrestling as Prayer – Quoted from O’Hallesby’s “Prayer”

기도를 씨를하듯 - 오헬리스비의 “기도”에서 옮겨옴

대부분 왜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가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 기도하는 데 그렇게 많은 고통이 따르는 것인가? 왜 기도하는 삶은 끊임없는 고통의 원천이 되는 것인가?

잠시 묵상을 해본다면 실질적으로 그럴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약, 이미 본데로, 기도가 새로운 믿음의 삶의 중심적 기능이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심장부라면 우리의 기도의 삶은 바로 사단의 가장 강하고 많은 화살을 겨냥하는 목표물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단은 우리보다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있는가를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사단의 가장 최고의 공격의 대상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삶인것이다. 만약 사단이 우리의 기도의 삶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앗가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삶을 앗아갈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의 방법일 뿐 아니라, 이 방법이야 말로 매우 조용하며, 공격을 느낄 수 없는 방법일 될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과,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인정한 정도의 사람들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사단은 모든 수단방법을 다 사용하여 우리고 기도하기 못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 옛 아담,은 그의 최고의 아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 의하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바로 우리의 죄성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로마서 8:7).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성을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제 사단의 밥이 되지 않기위해 기도하라.